

【韓国語 스피치原稿】

## 나와 한국어

안녕하세요. 저는 센다이 이쿠에이가쿠엔고등학교에서 온 이시구로 카에데라고 합니다.

제가 중학교 2 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k-pop 을 듣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k-pop 을 듣기 시작하면서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습니다. 당시 “안녕하세요?” 하고 “감사합니다” 밖에 몰랐던 저는 가사 내용도 드라마 내용도 일본어 자막 없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. 저는 자막 없이도 한국어를 이해하고 싶어서 그 때부터 독학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어느 나라 언어나 공통되는 것이긴 하지만 글을 읽지 못하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한글부터 공부했습니다. 일본인인 저에게 한글은 처음 보는 문자여서 ‘ 뭐야? 이 암호 같은 건 ’ 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만 한글의 구조를 알게 되자 처음에는 암호였던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말의 의미를 몰라도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성취감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. 고등학교에 입학하고,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, 지금까지 공부해 온 한국어를 사용해서 한국인 유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. 그 아이는 일본어를 매우 잘해서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안다고 일본어로 말해 주었습니다. 저는 그 아이와 친구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일본어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 한국어가 늘지 않고, 그 친구와 한국어로도 회화를 할 수 있게 되고 싶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. 예를 들면 집에서 혼잣말을 모두 한국어로 하거나, 그 친구와 이야기할 때 아는 단어는 한국어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. 또 모르는 단어나 숙어는 찾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. 새로운 단어를 하나라도 외워서 썼고, 그것이 통할 때마다 무척 기뻐했습니다. 회화와 공부를 계속하다보니 지금은 일상회화 정도라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저는 한국어를 매일 접하면서 변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성격입니다. 저는 원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약하고,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는 부정적인 인간이었습니다. 하지만 한국어라는 외국어를 완벽하지는 않아도 말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, 그 결과 지금 여기에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두 번째는 꿈입니다. 저는 중학생때까지는 간호사가 꿈이었습니다. 하지만 한국어와 매일 접하면서 장래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,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었고, 부정적이던 제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등 저에게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. 한국어는 제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.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어와 이어진 삶을 살고 싶어요.